

## 현대 패션에서 헤어 스타일이 지니는 의미 - 젠더와 문화정치적 관점을 중심으로 -

권 기 영

미시건 주립대학교 연구원

### The Meaning of Hair Style in Modern Fashion Design -In aspects of gender and cultural/political standpoint-

Gi Young Kwon

Post-doctorate, Dept. of Apparel and Textile Design, Michigan State University  
(2004. 2. 6.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air in aspects of gender and cultural/political ideology, and to confirm the meanings of hair style in modern fashion. There are three zones of social significance such as head hair, facial hair, and body hair, and each of these zones has both gender and ideological significance. In aspects of gender, opposite sexes have opposite hair norms. And, in sociocultural standpoint, hair is a political symbol of the main protest movements in culture. The contemporary hair styles in fashion design mean that the 'paying' with gender identity, the reflection of changing sexuality, the non-politicism, the fragmentation of style, and the naturalness.

**Key words:** Culture-political, Gender, Hair, Meaning, Symbol; 문화정치적, 성, 헤어, 의미, 상징

#### I. 서 론

현대사회는 대중 매체를 비롯한 물질문명의 발달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외관을 통해 나오는 이미지로 개인을 정의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잡지, 음악, 영화, 광고 등은 시각적인 영상을 통해 이상적인 신체미와 욕망을 투사시키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이와 함께 의복, 메이크업, 헤어, 그리고 다이어트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타일의 수용과 해석을 위한 이해를 도우며 현재의 유행스타일을 선도한다.

이처럼 미에 대한 관심이 신체 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가운데, 헤어스타일은 개인과 집단 정체성을 나타내는 강한 상징으로서 인상을 결정하고 패션을 완성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커다란 의미를 차지한다. 비록 헤어가 개인의 신체와 관련한 사적인 영역이지만 가시적이고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공적인 특성을 지니며, 시대를 반영하는 가시적 언어로서의 복과 함께 다양한 문화적 함의를 가진다.

인류학자들은 헤어가 소비자의 관습과 기술에 대한 생각, 패션과 청결에 대한 규준, 그리고, 이상적인 여성성과 사회질서의 변화에 대한 사고에 대해 생각하는데 도움을 준다(Zdatny, 1999)고 보았으며, 역사가들도 헤어가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띠며 특히 이상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다는 데 동의한다.

헤어는 길이, 색상, 스타일, 가발 등의 변형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며 시대와 장소, 가치관과 사상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Synott, 1993). 전통

적인 사회에서 제도화된 헤어 형식은 성과 지위의 차이를 상징하며 안정적인 구조를 이루었으나, 현대의 개방적이고 민주화된 서구 사회에서 헤어 규범은 젠더와 지위, 정치문화적 이데올로기,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 생활에서의 변화를 반영하며 급변하고 있다. 헤어의 패턴과 변화의 과정은 성, 직업, 연령, 신념,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정치적 지향과 같은 사회적 구분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상징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헤어는 패션과 마찬가지로 문화와 경제 뿐 아니라 정치와도 관련되어진다(Coffin, 1996). 이와 같이, 헤어는 신체의 일부분으로서 물리적이며 개인적인 대상인 동시에 자아와 집단 정체감의 표식, 그리고 자기표현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형태로서 사회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Synnott, 1993), 패션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강력한 인자로서 현대 패션의 이해와 주제 전달을 위해 헤어스타일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헤어스타일과 관련한 연구로 미용분야에서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에 관한 연구(전선경, 양선미, 1997)와 의류학 분야에서 히피 패션과 관련한 헤어스타일 연구(박길순, 이수인, 1999) 등 특정 사조나 트렌드와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을 뿐 헤어스타일을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패션과 함께 그 의미를 규명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20세기 헤어스타일이 패션과 함께 변화해 온 모습을 일반적 관점으로서의 젠더적 측면과 상대적 관점에서 바라본 정치문화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패션에서 헤어스타일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살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 문화사, 복식사, 그리고 향장 역사와 관련한 서적과 저널을 고찰하였으며, 현재 패션에서 보여지는 헤어스타일의 분석을 위해 1990년 이후 발표된 패션잡지와 작품을 분석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헤어의 상징적 의미

오늘날 헤어는 신체의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사상과 신념을 표상하는 신체 부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러 학자들이 헤어가 가지는 상징

과 이것의 해석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징의 해석에 있어서 사회적 관점을 고려할 것을 주창한 Mary Douglas는 신체의 물질적인 경험은 사회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승인한다고 언급하며, 그 예로 현대 사회의 흐트러진 텁수룩한(shaggy hair) 머리는 단순히 전문적인 손질의 부족이라기보다는 개인주의, 무심함, 또는 외로운 늑대와 같은 더 다양한 의미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Mary Douglas, 1978).

Leach(1958)와 Hallpike(1969)는 의미에 대한 표식이 불일치하더라도 표식과 의미의 일대일 대응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Leach는 짧게 자른 머리=성적인 제한이라고 보았으며, 이에 반해 Hallpike는 컷트=사회적 통제라고 해석하여 전해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헤어스타일의 해석에는 단순한 이중적인 구조, 즉 컷트/자르지 않은, 또는 짧은/긴 머리 이상의 더 복잡한 관념적인 틀을 고려해야 하며, 어느 한 스타일마다 한 가지 이상의 미묘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Turner(1967)의 상징의 중복성(multi-vocality)과 Firth(1973)의 상징의 포괄성은 어느 한 대상이 표방하는 의미가 단일한 고정된 패턴이 아닌 유동적이며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스킨헤드와 해군의 아주 짧은 헤어컷은 유사한 외양을 보이지만, 전적으로 다른 반대의 가치와 실제(實際)를 표현한다. 즉 스킨헤드의 헤어스타일은 해군이 지지하는 사회에 대한 저항과 거부를 상징한다. 남성의 수염 역시 마초, 또는 보수적인 유대교인이나 이슬람 교도와 같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됨으로써 같은 헤어스타일이 다른 실재(實在)를 상징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반대로 다른 헤어스타일이 유사한 가치를 상징할 수도 있다. 이것은 집단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질적인 사회구성원들이 심볼의 고유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평크와 스킨헤드는 기성사회를 거부하는 데 있어 일치하는 견해를 갖고 있으나 전혀 다른 헤어스타일을 채택한다.

이처럼 어느 한 스타일에 대한 상징의 본성은 주변의 여러 사항들을 종체적으로 고려한 바탕 위에 성립되어야 한다. 특정한 현상에 특정한 의미라는 일대일 상관관계는 없는데, 이는 사회의 복잡성에 기인한 것으로 한 문화에서 수치의 대상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영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즉, 각각의 맥락마다 헤어의 의미는 다양하며, 때로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반대를 신체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더 의미있다(Synnott, 1993).

## 2. 일반적 관점과 상대적 관점에서 바라본 헤어의 상징성

신체의 사회학적 관점에서 헤어의 사회학은 일반적 관점으로서의 젠더와 상대적 관점으로서 문화정치적 이데올로기라는 두 측면에서 물리적인 신체와 사회적인 신체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 때, 헤어의 세 영역, 즉 길이와 색상, 스타일은 헤어의 변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신체 상징의 측면에서 이데올로기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Synnott, 1993).

### I) 일반적 관점: 젠더 규범

헤어는 신체의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양식으로 자아의 공적, 사적 상징으로서 독특함과 힘을 발휘하는데, 그 중 성의 구분은 헤어스타일이 지닌 가장 가시적 정표의 하나이다.

헤어는 위치에 따라 머리카락, 얼굴에 나 있는 털, 몸에 있는 털의 세 영역으로 나뉘며, 길이와 색상, 스타일, 가발을 통해 변형 가능하다.

헤어의 길이는 젠더 표식과 섹스 심볼로서(Hallpike, 1969), 근대 아래로 남성은 단정하게 짧은 스타일, 여성은 긴 머리를 고수했다. 문학이나 패션잡지 광고에서 여성의 긴 머리는 여성다움의 상징으로 남성들에게 섹스어필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묘사되어지며(Cooper, 1971), 반대로 짧은 머리는 남성적이고 보이쉬하다고 여겨져 왔다. 긴 머리가 섹슈얼리티를 상징한 아래,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단념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1920년대에 유행한 보이쉬 스타일(boyish style)은 당시 사회의 개방적인 무드와 효율성을 강조한 모더니즘이 복식에 반영된 것으로 이러한 스타일의 여성은 직선의 짧은 머리를 하였다.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짧은 머리는 자유와 말괄량이를 상징하며, 여성 참정권론자, 플래퍼, 수녀, 그리고 활동적인 비즈니스 여성들에 의해 채택되어졌다(Guthrie, 1976). 오늘날에도 커리어 우먼은 너무 길거나 짧지 않고, 또한 너무 곱슬거리거나 직모가 아닌 헤어스타일을 함으로써 젠더, 파워, 그리고 섹슈얼리티를 함축하지 않도록 조언받는다(Freedman, 1986). 한편, 70년대의 유니섹스 영향으로 남성들은 머리를

길게 길렀는데, 이는 근대 이후 짧은 머리를 남성다움의 규범으로 여기던 기준의 가치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큰 의미를 지니며, 록 가수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졌다.

스타일에 있어서 여성의 헤어스타일은 남성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하며 자주 변화를 추구한다. 패션잡지나 트랜드북은 최신 유행 헤어스타일에 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와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해 줌으로써 여성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새로운 스타일로 변신하도록 자극한다. 과거에 비해 남성들도 헤어스타일과 치장에 많은 관심을 지니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한 스타일을 고수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남성은 보수적이고 지나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일관성을 규범으로 하기 때문이다. 20세기 동안 서구 남성들은 짧고 단순한 헤어스타일을 취해 왔으며, 이러한 남녀의 차이는 젠더를 구분하는 표식으로서 여성미에 대한 신화를 지속시켜 왔다(Freedman, 1986).

헤어의 색상 역시 젠더 고정관념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금발은 우둔하다고 하는 부정적인 선입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이상적인 헤어 컬러로서 섹시함과 관련되고, 반대로, 어두운 머리색은 남성의 이상적인 색으로서 힘과 지성 등을 나타낸다고 여겨져 왔다 (Synnott, 1993). 이는 여성의 색상으로 핑크, 남성을 위한 색상으로 블루라는 젠더 컬라에 대한 일종의 같은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것으로, 많은 여성들의 금발에 대한 선호와 대중매체의 연예인들의 압도적으로 많은 금발머리는 금발에 대한 신화를 반영한다. 한편, 회색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색으로 노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남녀 모두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남성에게는 고귀 또는 귀품의 표시로, 반면 여성에게는 노화의 징후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성차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헤어의 색상은 젠더에 따른 차별적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며 오늘날 짧음에 가치를 두는 사회를 반영한다.

가발의 경우, 여성은 유행을 추구하거나 머리를 관리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 비해, 남성은 탈모로 인한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역시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Synnott, 1993).

얼굴에 있는 수염은 남성에게는 남성다움과 성인임을 나타내는 상징이지만, 여성에게는 제거해야 할 수치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20세기에 들어와 1940년대까지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깔끔하게 면도한 말쑥한 얼굴을 선호했으며, 이것이 현재까지 보수적인 남

성의 외모 규범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서구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으로, 지역문화에 따라 다른 규범을 따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중국 대륙의 이족이라고 불리우는 소수민족의 남성은 수염이 없는 것이 최고의 남성미를 상징한다고 여기고 절대 수염을 기르지 않는다.

바디 헤어도 성차에 따른 상반된 기준이 존재하여, 남성에게는 사나이다움과 섹스 심볼의 표식으로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편, 반해, 여성은 수치의 대상으로 제모제를 이용하여 겨드랑이나 다리의 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Synnott, 1993).

이와 같이 일반적 관점에서 젠더에 따른 헤어규범은 서로 상반된 양상을 보이며, 20세기 이후 사회가 분화되고 다양해지면서 젠더보다 이념이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상대적 관점: 문화정치적 이데올로기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 헤어스타일 및 복식은 신분제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결정되어 주어지는 것이었지만, 신분제가 붕괴되는 근대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취향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구성하는 자기표현 방식이 되었다. 특히, 헤어는 가장 눈에 띄는 외적 표식의 하나로서 개인이나 집단의 사상과 신념을 나타내는 심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헤어의 세 가지 영역, 즉 머리카락과 수염, 바디 헤어는 시대의 문화정치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집단, 예를 들면, 기성세대에 거부하는 여러 하위문화 집단들 사이에서 그들의 저항과 신념, 가치를 나타내는 표식으로서 채택되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상반되는 이데올로기를 가지면 길이나 색상, 스타일 등에서 반대되는 헤어규범을 따른다.

길이의 측면에서, 남성의 긴 머리나 과도하게 짧은 머리, 또는 여성의 짧은 머리는 젠더에 따른 일반적인 헤어규범을 거부하고 반대의 헤어스타일을 고의로 채택한 것으로 이는 기성사회에 대한 저항과 기존의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을 상징한다. 19세기 이후로 긴 머리는 남성이 아닌 여성의 상징이었는데, 히피 남자들의 긴 머리와 긴 수염은 기성세대의 규범과 헤어에 대한 젠더 규범을 거부하고 반대 성에 대한 함유를 보여주는 것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머리카락이 길면 길수록, 더 현실참여적임을 반영한다. Willis (1978)는 히피의 긴 머리는 잠재적으로 자유를 주장하고, 자연으로 돌아감을 상징화하며, 문화적 선택이

긴 하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그룹의 정체감을 표시한다고 하였다. 한편, 스킨헤드의 아주 짧게 깎은 머리는 그들의 가장 두드러진 외모 특성으로 기성세대와 히피에 대한 이중의 반발을 상징하는데(Synnott, 1993), 이들은 남녀에 상관없이 머리를 깎았으며, 남성들은 콧수염을 기르지 않았다.

헤어의 색상 역시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데, 예를 들면, 테크노 칼라, 핑크나 밝은 그린, 자주, 블루, 빛나는 오렌지 등 형광 염료로 염색한 평크의 현란한 헤어색상은 그들을 다른 집단과 협력하게 구별시키며 저항과 일탈을 상징하였다. 염색을 통한 헤어 색상의 전환은 고대의 관습으로 19세기 프랑스에는 전 헤 드물었다. 그러나, 20세기가 되면서 짚음을 송상하는 문화와 함께 염색약이 자연물질로부터 개발되고 덜 위험하게 되면서 회색 머리를 감추기 위한 염색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평크의 경우와 같이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염색을 행하기도 했다.

스타일의 측면에서 헤어는 지위, 종교, 인종, 정치 등과 관련된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근세 이전까지 헤어는 신분과 계급을 상징하는 요소로 부피가 크고 높으며 장식을 많이 할수록 높은 지위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이후 신분제가 붕괴되고 사회가 다양한 집단과 단체로 복잡하게 분화되면서 각 집단의 이데올로기와 이해를 반영하는 표식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이슬람교와 유대교 남성들이 수염을 기르는데 반해, 불교에서는 머리털을 모두 깎는데, 이러한 종교와 관련된 헤어규범은 신앙과 결속력을 다지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인종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띠는 헤어의 재질이나 색깔, 스타일 등의 특성이 인종과 관련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나타내기도 한다. 흑인의 아프로 헤어스타일은 50년대와 60년대 민권 운동과 흑인 파워 운동이 주창한 'black is beautiful'의 상징으로서, 흑인의 궁지를 표시하는 가장 뚜렷한 이미지이자 60년대 후반의 반문화적인 초상의 일부분이며, 패션이라기보다 흑인의 파워를 나타내고자 하는 정치적 색채가 짙어 가장 강력한 블랙 파워의 스타일 정치학(Kelley, 1997)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72년까지 아프로의 급진적인 의미는 소진되었고 이후 뒷골목의 게토(getto) 스타일로 유입되었다. 오래지 않아 아프로는 정치적인 상징을 의미하기보다는 패셔너블한 것이 되었으며, 흑인들의 콘로와 브레이드 스타일 역시 인종과 사상을 불

문하고 받아들여졌다. <Fig. 1>의 60년대 후반에 인기있는 악세서리였던 아프로 가발착용은 흑인의 혁명적인 주장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정치적 선택을 교묘히 회피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Jones, 1990). <Fig. 2>의 드래드락스(dreadlocks)는 전통적인 기독교를 거부하고 흑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백인우위의 사회에 대한 종교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반대를 상징하던 라스타파리언들의 독특한 헤어스타일로서, 그들을 다른 집단과 차별화시켜 주는 유의미한 기표이자 정치적인 신념을 상징하였다(Hebdige, 1979). 한편, 테디보이(Teddy Boys), 모즈(Mods), 히피(Hippie), 스킨헤드(Skinhead), 폭크(Punk), 고딕(Gothic) 등 기성의 가치에 반기를 든 하위문화의 구성원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외모와 표식을 통해 신념과 가치를 드러내는데, 이 때 헤어스타일은 가장 두드러지는 외적 표식으로서 역할한다. <Fig. 3>의 테디 보이의 앞머리에 크게 컬을 주고 옆머리는 뒤로 날리며 뒷부분을 짧게 자른 스타일은 기존의 규범에 반기를 든 최초의 영국 남성의 헤어 컷으로 공공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며(Jones, 1990), 초기 모즈(Mods)에 의해 채택되어졌다. 그리고, 반전과 핵 비무장화 운동과 같은 정치적 운동의 형태를 통해 1960년대 사회운동을 주도했던 히피는 무정부주의적 개인주의자들로서 탈사회적인 개성과 원시적 도취의 경지를 추구하며, 염색, 퍼머, 헤어스프레이, 가발과 같은 인공적인 치장을 거부하고 형클어지고 다듬지 않은 긴 머리를 했는데, 그들의 헤어스타일은 현대문명의 이기와 물질문명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였다. 스킨헤드는 히피의 긴 머리와 하위문화적 일탈을 증오하는 짧은 백인노동자로서 <Fig. 4>에서 보이는 그들의 짧게 깎은 머리(crop)는 철저한 안티페셔널 헤어컷으로 폭크가 탄생될 즈음 쇠퇴해갔고, 80년대에는 거의 사라졌다.



Fig. 1. Afro wig  
(Hairecuts, p.61)



Fig. 2. Rastapharian의 Dreadlocks  
(Hairecuts, p.88)



Fig. 3. Teddy boys  
(Hairecuts, p.26)

스킨헤드의 헤어스타일은 비록 폭력적이라는 암시는 더 이상 없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얼터너티브(alternative)를 상징한다(Jones, 1990). 한편, 폭크는 전후 영국의 문화 속에서 탄생한 가장 과격한 형태의 문화로 1970년대 말 노동자 계층의 젊은이들이 기성사회에 대한 반항을 복식으로 표현하고자 한 반모드 현상인데, 다른 하위문화 집단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그들의 내면적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상징하였다. 스파이크 머리, 날개, 긴 머리와 아주 짧게 깎은 머리가 믹스된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였는데, <Fig. 5>에서 보이는 형광색으로 염색한 모히칸족 헤어스타일은 대표적인 것으로 그들의 순수한 생명력과 가능성에 상징하였다. 이들의 머리색과 스타일은 뉴 웨이브나 섹스 퍼스톨즈와 같은 폭크 뮤지션에게도 수용되었으며, 이 때 헤어는 폭크의 사상과 신념을 대변하는 상징적 기표로서 강력한 의미를 띤다. 스킨헤드와 폭크는 남녀가 유사한 헤어스타일을 했는데, 이는 남성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헤어규범보다 이념과 가치 기준에 더 의미를 부여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젠더와 상징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측면에서 설명되어진다 (Synnott, 1993). 한편, Siouxie sioux가 창안한 80년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헤어컷 중의 하나인 고스(gothis) 헤어스타일(Jones, 1990)은 중세의, 야만의, 괴기스러운 뜻을 가지고 있는 “gothic”에서 따온 것으로 <Fig. 6>에서 보이는 거미줄같이 형틀어진 머리스타일이다. 이 스타일은 고딕 앤드로지니라고 불리는 짧은 남녀들에 의해 모방되었으며, 과격하고 반사회적인 의미를 가진다.

다음으로, 얼굴에 난 수염은 고대 이집트에서 권위의 상징으로서 왕족에게만 허가된 것이었으나, 신분제가 붕괴되면서 남성다움과 힘을 나타내게 되었다 (Rubinstein, 1995). 그러다가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Fig. 4. Skinheads  
(Haircuts, p.71)**



**Fig. 5. Punk  
(Haircuts, p.82)**



**Fig. 6. Gothic style  
(Haircuts, p.86)**



**Fig. 7. Malcom X  
(all american, p.169)**

불량배나 반역자를 상징하여 비트족과 급진주의 사상가들은 턱밑 수염(goatees)을 길렀다(Hilfiger, 1997). <Fig. 7>의 말콤 X는 미국의 급진파 또는 혁신 해방운동가로서, 수염은 이슬람교라는 그의 종교와 인권운동가로서의 그의 사상을 대변한다. 그러나, 젠더적 차원에서 남성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수염이 반대적인 의미를 암시하는 경우도 있다. 즉 남성의 beard는 호모섹슈얼리티를 은폐하기 위해 채택한 여성동료를 가리키는 게이들의 은어로서, 여성스러운 패션을 상쇄하기 위해 수염을 기르는 게이들의 사고가 들어있다. 그러나, 최근엔 이러한 표식이 오히려 그들을 다른 집단과 가시적으로 구별되게 하기 때문에 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바디헤어와 관련한 이데올로기로는 페미니스트의 관점을 들 수 있다. 전통적인 여성성에 대해 거부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인조속눈썹, 가발, 스프레이 등의 사용에 반대하고 여성들의 겨드랑이 털과 다리털 제모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며 헤어에 대한 관습적인 젠더 규범들을 공격하였다. 이들은 복장이나 헤어 측면에서 남성적인 외양을 보이며, 여기서 신체는 그 자체로 정치적인 상징으로서 역할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적 사회적 변화와 함께 나타난 여러 하위문화집단들의 헤어스타일들—아프로, 드래드릭스, 테디보이와 모즈, 히피, 스킨헤드, 평크 그리고 고스 등—은 각자의 이념과 가치 기준, 변화하는 가치와 사회적 현실, 그리고 저항을 상징하며, 이를 통해 동료 집단과 함께 착용자를 표시하는데, 이는 하위문화가 외모와 태도를 통해 스타일의 정치학을 추구했음을 뜻한다. 예를 들면, conk(흑인의 곱슬거리는 헤어를 폐는 과정)아프로, 젖은 머리/드래드릭스, 히피의 긴 헤어/스킨헤드, 그리고 히피와

스킨헤드에 모두 반대하는 평크 헤어스타일은 각기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며 그들의 정체성과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중요한 표식으로 역할한다. 이상 <Table 1>에 젠더와 문화정치적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살펴본 헤어규범과 상징적 의미를 정리하였다.

### III. 현대 패션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의 표현 양상의 의미

헤어스타일은 패션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젠더 및 문화정치적 관점에서 현대 헤어스타일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젠더 정체성의 유희

헤어는 젠더를 구분하는 외적 표식의 대표적인 요소로서 일반적인 젠더 헤어규범에서 벗어난 스타일을 채택하는 것은 성 정체성을 모호하게 한다. 이것은 성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의 붕괴와 양성성 개념의 대두, 그리고 동성애의 인정 등 여러 가지 성에 관한 인식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면, 드래 퀸이나 드래 킹은 성 정체성을 표식하는 외적 코드의 조작을 통해 젠더 고유의 특징을 희석하고 이성의 성을 강화하며, 이 때 헤어스타일은 신체의 일부로서 메이크업, 그리고 의복과 함께 일탈적 성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러한 크로스드레싱 또는 트랜스베스티즘(반대 성의 의복을 입는 것)을 통한 젠더 정체성의 유희는 데이빗 보위, New York Dolls 와 같은 글램 락 뮤지션들의 의상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 외모에 대해 젠더 왜곡을 가하기보다,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의복에 남

&lt;Table 1&gt; 젠더와 문화정치적 이데올로기 축면에서 살펴본 헤어규범과 상징적 의미

일반적 관점 - 젠더 규범		상대적 관점 - 문화정치적 이데올로기
머리 카락	길이 • 남성 - 짧은 머리 • 여성 - 긴 머리	• 남성의 긴 머리 - 일탈, 저항 (히피) • 여성의 짧은 머리 - 여성성 거부 (페미니스트) • 스킨헤드 - 일탈, 저항 (스킨헤드)
	색상 • 남성 - 보수적, 스타일별 변화를 추구 • 여성 - 스타일리시한 헤어 변화를 추구	• 형광색의 화려한 염색 머리 - 반항, 저항 (펑크)
	스타일 • 남성 - 보수적 스타일 • 여성 - 스타일리시한 헤어 변화를 추구	• 아프로 - 혼인의 정체성 추구 (혼인파워운동) • 드래드릭스 - (라스터파리언 운동) • 테디보이 스타일 - 기성사회에 불만, 저항. 성에 따른 의모규범에 도전(테디보이, 초기 모즈) 헝클어진 긴 머리 - 일탈, 저항 (히피)
	가발 • 남성 - 단점 은폐 • 여성 - 유행 추종	• 스킨헤드 - 일탈, 저항 (스킨헤드) • 모히칸 스타일 - 생명력, 저항, 과격 (펑크) • 고스 스타일 - 과격, 반사회적 의미 (고스)
	수염 • 남성 - 힘, 남성다움 상징 • 여성 - 수치의 대상	• 1960년대 아프로 가발 - 정치적 지향점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선택을 회피
	바디 헤어 • 남성 - 힘, 남성다움 상징 • 여성 - 수치의 대상	• 50 - 60년대 남성 수염 - 반역, 급진주의 (비트족, Uncle Sam) • beard - 동성애자 (케이)



Fig. 8. Moschino, 1989S/S (Material man, p.142)



Fig. 9. Vivienne Westwood, 1990 (Chic Thrills, p.168)

성의 헤어규범을 따르거나, 또는 <Fig. 8>에서처럼 전형적인 아메리칸 마초를 상징하는 카우보이 복장과 콧수염에 여성의 가발을 착용하는 등의 행위는 착용자의 성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동시에 희극적 효과를 연출한다. <Fig. 9>의 Vivienne Westwood의 패션쇼에 등장한 모델의 퍼포먼스 역시 얼굴에 난 헤어와 의복과 관련한 젠더 정체성의 유희를 보여준다. 여성모델의 긴 웨이브진 머리와 셔츠 속에 걸친 탱크탑과 팬티는 섹슈얼한 여성미의 표식으로서 성과 일치를 이루지만, 곁에 헐렁하게 입은 셔츠는 남성성을 연상시키며 의복의 시각적 이미지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모델의 세이빙 행위는 여성에게 수치의 대상인 얼굴에 난 털을 제거함으로써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젠더 헤어규범을

준수하는 과정으로 여겨짐과 동시에, 남성적인 스타일의 셔츠 착용과 남성의 세이빙 모방을 통한 여성에게 내재된 남성성의 연출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 되어지면서 얼굴에 난 헤어를 통한 젠더 정체성 유희를 보여준다.

이처럼 헤어는 성 정체성에 관한 의복코드의 해석에 중요한 단서로서, 현대 패션에서 헤어의 조작은 젠더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고 웃음을 유발하는 유희적 대상으로 다양하게 연출되어지고 있다.

## 2. 섹슈얼리티의 반영

젠더적 관점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성에 따른 헤어규범은 이상적인 신체미와 결부되어 섹슈얼리티의 강화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최근에는 일반적인 젠더 규범을 벗어나 서로 반대의 성에게서 빌어오거나 이미지를 차용 또는 조합함으로써 변화하는 섹슈얼리티를 제시하기도 한다.

특히 섹슈얼리티를 앞세운 포르노그래피 산업의 발달은 성 상품화를 가속하며 광고나 패션에서 누디즘 열풍을 이끌고, 이 때 남성의 신체 노출은 바디헤어와 관련한 남성 섹슈얼리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잡지 또한 여가와 레저를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신체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캐주얼 및 스포츠 의류에 큰 중점을 두면서 남성의 몸을 보

여줄 뿐 아니라 힘과 정력의 표식인 근육질을 강조하면서 신체를 훈련하도록 남성을 자극한다. <Fig. 10>의 상반신을 노출한 Calvin Klein 광고모델은 어깨가지 내려오는 단발머리에 수염과 가슴털이 없는 매끈한 피부를 통해 과거 짧은 머리에 턱수염, 가슴털 등 남성다움을 규정하는 표식이 보여주던 거친 남성의 이미지에서 부드럽고 섹시한 이미지로의 남성다움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남성 바디 헤어 규범의 변화는 피트니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짙음과 근육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Morago, 2003).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metro-sexual (대도시에 살며 자신을 사랑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 성적 취향의 사람)’이나 한국의 ‘꽃미남’은 변화하고 있는 남성 섹슈얼리티를 보여주는 신종아로서, 일부 사회학자들은 남녀 성역할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가운데 나타나는 새로운 종류의 성이라고 주장(민동용, 2003)하는데, 이들은 1990년대 이후 남성감성, 직업영역, 일하는 방식 등 사회의 기준점들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다양해지면서 나타난 변화에 기인한다(‘新남성 메트로족’, 2003).

이와 같이, 최근의 여성화, 중성화된 남성 신체 이미지(윤지영, 2001)는 변화된 헤어규범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새로운 남성 섹슈얼리티의 반영으로 이상적인 남성미에 대한 재정의를 보여준다. 그러나 오늘날 남성의 여성화에 대한 우려와 새로운 남성성을 제시하기 위한 의도로 패션광고는 수염과 가슴털이 있는 남성모델을 등장시키며 (Malossi, 2000), 이러한 스트레이트 남성잡지에 등장하는 남성의 수염은 더 이상 수염이 동성애 코드가 아님을 보여준다. <Fig. 11>의 Yves Saint Lauren의 M7 향수광고에 등장한 나르시스적 이미지의 남성모델은 까칠한 수염과 가슴에 난 털을 통해 남성미를 강화하지만 신체를 노출한 채로 나른하게 누워있는 무방비 상태의 포즈는 과거의 강한 남성미를 강조하던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 광고는 Calvin Klein이나 Abercrombie & Fitch광고에서 보여졌던 털이 없는 매끈한 남성미로부터 가슴털이 있는 남성으로의 유행변화를 알려준다.

과거 남성 의복은 지위를 상징하고 신체를 은폐해 왔으나, 최근의 남성패션은 신체의 노출과 강조를 통해 헤어와 근육 등을 드러내며 남성다움의 중심이 신체임을 보여 준다(Malossi, 2000). 이러한 광고에서 묘사되는 남성 애로티시즘은 여성을 겨냥한 시장전



Fig. 10. Calvin Klein  
(US GQ 2002, Nov., p.5)



Fig. 11. M7 ads  
(US GQ 2002, Nov., p.85)

락인 동시에 여성들을 성적 도구화한 기존 광고에 대한 반발로서 ‘포스트 페미니즘’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이경선, 1994). 영화, MTV, 패션잡지 광고 등의 대중매체에서 제시되고 있는 스타나 모델들의 첨단 패션과 잘 관리된 신체는 유행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섹슈얼리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이 과정에서 성은 자본주의의 이윤추구원리에 따라 상품판매를 위한 홍보를 위한 것으로 성 개방에 일조를 한 부분이 있는 반면, 성을 사물화했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갖기도 한다(정근원, 1996).

오늘날 헤어는 여성적이나 남성적이나 하는 과거의 젠더적 규준보다 다양한 개인의 미적 규준과 개성을 보여주는 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변화해가는 섹슈얼리티를 반영한다.

### 3. 비정치주의

20세기의 다양한 스타일을 창출했던 이념과 사상은 자본주의와 대중매체를 앞세운 상업화의 물결에 의해 퇴색되어지고, 시각적으로 보여지며 유동하는 이미지가 현대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Stewart Owen은 스타일의 정치학 관점에서 물질문명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타일은 소비와 관련되어지고, 대중적인 관념을 전달하고 극대화하며 굴절시키는 대중매체에 의해 일정한 이미지로 생산 유통되며 소비되어진다고 보았다(스튜어트 오웬, 1996).

MTV 뮤직 비디오에 등장하는 뮤지션의 레게 머리나 드레드럭스는 더 이상 라스타파리어니즘을 의미하지 않으며, 백인 음악가들 역시 과거 인종주의적 사상에 기반을 둔 헤어스타일들을 채택하는데, 이 때 원래의 스타일이 지니고 있던 정치적 함축은 제거되

고, 그들의 음악적 성향과 개성을 나타내주는 언어로서의 역할을 한다. 스타일과 이미지의 대명사인 패션 역시 대중매체를 통해 유통되고 소비될 때 사상이나 이념과 같은 정치성은 사라지고 일종의 상품으로서 비정치성을 띠게 된다. 패션 디자이너들의 쇼에 등장하는 아프로, 스킨헤드, 평크, 고딕 등의 헤어스타일은 정치적 사상과 이념이 제거된 하나의 모티브로서 극적 긴장감과 패션의 이미지를 위해 연출된 것이다. 이는 확정적인 기의에서 떨어져 나간 기표만이 부유하는 언어적 의미의 와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체주의가 표방하는 스타일의 해체를 통한 비정치주의와 함께 새로운 개성을 표현한다.

특히 대중문화의 빌랄과 함께 연예인의 외모는 일반인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광고주들은 이들이 지닌 상업적 가치를 상품과 연관시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한다. <Fig. 12>는 60년대 짧은 총의 우상이었던 비틀즈를 헤어스프레이 광고에 내세운 것으로, 스타의 스타일이 지닌 상징적 의미가 가진 수용 가능성을 이용한 것이다(황병일, 1995).

#### 4. 해체성

현대 패션에서 보여지는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의상들은 기존 스타일의 모방 및 재현, 조합을 통한 스타일의 분열을 보여주며, 헤어스타일도 이러한 패션 트랜드에 따라 고정된 패턴이 아닌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하위문화권의 사상과 신념을 상징하는 외적 표식이 되었던 히피, 스킨헤드, 평크 등의 헤어와 동시에 각 문화의 전통적인 헤어스타일 등 기존의 스타일들은 변화를 주거나 서로 혼합하여 새로운 이미지



**Fig. 12. Hair spray ads  
(All American, p.169)**



**Fig. 13. Gohn Galliano, 97 F/W  
(Extreme Beauty, p.15)**



**Fig. 14. Paul Smith, 93/94 F/W  
(Material man, p.79)**

의 스타일을 창조하고 있다.

<Fig. 13>의 John Galliano의 작품에서 보이는 모델의 검은 브레이드 헤어스타일과 목 장식은 아시아 소수민족의 전통적인 헤어와 장신구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으로 동양적인 이미지를 자아내는데, 이는 서구적인 의복의 스타일과 실루엣과 함께 조합됨으로써 헤어와 의복 규범의 일관성을 해체하고 시각적 이미지의 불일치를 이룬다. 스킨헤드의 짧게 깎은 머리의 여성모델이 착용한 우아하고 로맨틱한 분위기의 하이패션은 스킨헤드가 의미하는 사회의 지배적 질서에 대한 상징적 도전이라는 스타일이 지닌 의미체와 불일치를 이루며, <Fig. 14>의 단정한 스타일의 슈트를 입은 모델의 헝클어진 헤어스타일 또한 보수적인 의복규범에 걸맞지 않는 자유롭고 일탈적인 이미지로 시각적인 충돌을 일으킨다. 이러한 의복 스타일과 헤어스타일의 연관성 없는 무작위적인 조합은 후기 자본주의의 사회의 혼성모방 현상과 관련(양학미, 1999)되며, 스타일의 분열과 해체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최근 패션에서 보여지는 헤어스타일은 기존 헤어스타일의 형태문법을 파괴하고 변화를 주거나 스타일 간의 조합을 통해 원래의 내적인 의미가 배제된 해체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해체주의의 불확정성, 브리콜라쥬 등과 관련되어진다. 소수의 양식에서 다양한 장르로 분화되고, 형식주의가 지니는 일관적이고 보편적인 규범과 스타일의 전형은 경계성을 상실하여 기표와 기의의 해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헤어규범을 벗어난 새로운 헤어스타일의 창조는 유행의 원동력이 됨과 동시에 사회의 관념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 5. 자연주의

인간을 둘러싼 유해환경에 대한 위기의식과 차가운 기계문명이 가져다 준 인간소외는 자연에 대한 소중함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식품, 인테리어, 화장품 등에서부터 패션 및 헤어스타일에까지 자연주의를 확대하고 있다. 패션에서 보이는 정돈되지 않은 형틀을 어진 머리와 옅은 메이크업의 자연스러운 외모 추구는 이를 반영하는 한 예로, 헤어스타일리스트들은 최근의 트랜드에서 보여지는 따스한 느낌의 밤색의 브라운, 빛바랜 금발 등 자연의 색깔을 보여주는 헤어 색상과 내츄럴 스타일은 자연주의 경향을 보여준다 (Hair fashion, 2002)고 언급하고 있다.

헤어스타일의 자연주의는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히피 패션(박길순, 이수인, 1999)과 상당한 연관을 갖고 있다. 물질문명의 고발, 인간성 회복, 진정한 자아의 모색 등 저항정신을 갖고 형식에 얹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던 히피의 정신은 현대 사회의 물질문명과 환경오염에 대한 반발로 자연과 신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요즘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 <Fig. 15>의 Guess 광고는 마치



Fig. 15. Guess ads (US Vogue, 2002, Nov., p.265)

금방 잡에서 깐 듯이 형틀어져 있는 머리에 릴렉스한 캐주얼을 착용한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위적인 연출이라 할지라도 최근의 이러한 헤어스타일의 유행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개인적인 삶의 추구와 고독한 이미지, 그리고 본연의 자연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내면을 보여준다.

현대의 복광고에 나타난 소비자 가치가 물질지향적 가치에서 인간지향적 가치를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고선영, 이은영, 1998)하고 있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확산으로 개인의 기호가 다양해지고 개인과 개인과의 조화,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중시되게 되었기 때문이며, 광고모델들의 일부러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 <Table 2>에 헤어스타일의 표현양상과 상징적 의미를 정리하였다.

## IV. 결 론

헤어는 총 자아 표현의 한 부분으로서 행동, 태도 그리고 언어 못지 않게 새로운 정체성과 이데올로기를 나타내는 주요 상징(Hebdige, 1979)으로, 다양한 문화적 함의를 지니며 이미지에 미치는 시각적인 영향력이 다른 어느 부위보다 높다.

본 연구는 헤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젠더적 관점과 문화정치적 관점에서 살펴본 후 현대 패션에서 보여지는 헤어스타일의 양상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헤어는 성을 구분하는 가시적 징표로서 위치에 따라 머리카락, 수염, 바디 헤어로 나뉘어지며, 길이, 색상, 스타일 등의 면에서 변형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 짧은 머리와 짙고 어두운 색상, 그리고 일

<Table 2> 현대패션의 헤어스타일이 지닌 표현양상과 상징적 의미

구분	표현양상	상징적 의미
젠더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 정체성을 표시하는 외적 코드의 조작 – 이성의 가발 착용, 이성의 헤어규범 모방</li> <li>여성화, 중성화된 남성 신체 이미지 – 긴머리, 수염과 가슴털이 없는 매끈한 피부</li> <li>나르시스적 남성 애로티시즘 – 수염과 가슴털 등 바디헤어와 근육 노출(누디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젠더 정체성의 유희</li> <li>섹슈얼리티 반영</li> </ul>
문화정치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종, 정치적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헤어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인 음악가의 드레드헤어 등</li> <li>패션쇼의 아프로, 스키트헤드, 평크, 고딕 헤어스타일</li> </ul> </li> <li>헤어와 의복 스타일의 일관성 해체, 무작위적인 조합</li> <li>스타일이 지닌 의미체와 불일치</li> <li>꾸미지 않은 내츄럴 스타일 – 형틀어진 머리, 브라운, 빛바랜 금발 등 헤어 색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정치주의</li> <li>해체성</li> <li>자연주의</li> </ul>

관적이고 보수적인 헤어스타일을 남성답다고 여기며, 이에 반해, 여성의 경우는 금발의 긴 머리에 유행에 따라 스타일에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여긴다. 또한 수염과 바디헤어도 남성에게는 남성다움과 힘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긍정적으로 여겨지지만 여성에게는 제거해야 할 치욕의 대상으로 서로 상반되는 젠더 규범을 갖고 있다.

문화정치적 관점에서 헤어는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을 나타내는 심볼로서 젠더 규범을 거부하고 전혀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함으로써 외적 의미화를 이루었는데, 특히 20세기 하위문화 집단들 사이에서 헤어는 패션과 함께 저항과 신념, 이데올로기와 가치의 표식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변화를 거치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변증법적인 충돌을 일으키며 진화해 왔다. 일반적으로 상반되는 이데올로기를 가지면 반대되는 헤어스타일을 선보이며, 이념에 의한 헤어규범이 젠더에 따른 헤어규범을 초월함이 확인되었다. 헤어는 고정된 패턴으로서가 아닌 유동적인 과정, 초기의 스타일에 반대하는 스타일 변화로 이해되어지며, 젠더 또는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의 의미와 양상을 일반적인 젠더적 관점과 상대적인 문화정치적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젠더 정체성의 유희, 섹슈얼리티의 반영, 비정치주의, 해체성, 자연주의로 나타났다.

첫째, 이성의 가발을 착용하거나 헤어규범을 모방하는 등 성 정체성을 표식하는 외적 코드의 조작을 통해 젠더 고유의 특징을 회복하여 정체성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유희적 대상으로서 헤어를 연출한다.

둘째, 헤어는 일반적인 젠더규범을 벗어나 서로 반대의 성에게서 빌어오거나 이미지를 차용 또는 조합함으로써 변화하는 섹슈얼리티를 제시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의 여성화, 중성화된 남성 신체 이미지는 변화된 헤어규범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새로운 남성 섹슈얼리티의 반영으로 이상적인 남성미에 대한 재정의를 보여주는데, 이는 최근의 남성패션에서 보여지는 신체의 노출과 강조를 통한 남성 에로티시즘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헤어는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이거나 하는 과거의 젠더적 규준보다 다양한 개인의 미적 규준과 개성을 보여주는 한 요소로서 변화해가는 섹슈얼리티를 반영한다.

셋째, 문화정치적 관점에서 헤어는 과거 하위문화

의 스타일이 함축한 정치적 사상과 이념을 상실하고, 사회의 다양성과 열린 체제로의 전환, 개성 중시, 대중 매체의 발전과 스타마케팅에 힘입어 상업화됨에 따라 비정치성을 띠게 되었다. 즉, 이념보다는 스타일과 이미지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에서 정치적 사상과 이념이 제거된 하나의 모티브로서 극적 긴장감과 패션의 이미지를 위해서 연출되고 있다.

넷째, 헤어스타일은 패션의 다원주의와 함께 스타일의 모방 및 재현, 조합을 통한 해체성을 보여준다. 의복 스타일과 헤어스타일의 연관성이 없는 무작위적인 조합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혼성모방과 관련되며 스타일의 분열을 보여준다. 즉,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로 인한 스타일의 해체와 폐미니즘 등 여러 사조들은 헤어스타일과 패션에 있어서 젠더 정체성의 혼란과 스타일의 해체 및 재조합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낳고 있으며, 이러한 기존 헤어스타일의 형태문법을 파괴하고 변화를 주거나 스타일간의 조합을 통해 원래의 내적인 의미가 배제된 해체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정돈되지 않은 헝클어진 머리와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은 현대 사회의 물질문명과 환경오염에 대한 반발로 자연과 신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지고 있는 요즘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히피 패션과 깊은 관련을 맺으며 자연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서 헤어스타일은 사회의 복잡성과 다원성,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한 이미지가 지배하는 사회로의 전환 등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며 다양하고 창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유행의 원동력이 됨과 동시에 사회의 관념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점차 분화되고 독창적인 스타일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 패션과 헤어스타일의 방향을 예측하고 미래의 패션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선영, 이은영. (1998). 의복광고에 나타난 소비자 가치의 변화추세 고찰. -1976~1996년 남성월간지 의복광고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1), 89~99.  
 민동용. (2003, 8. 25). 며드팩 하는 남자.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03, 12. 26. 자료출처 <http://www.successpia.co.kr>  
 박길순, 이수인. (1999). 히피 헤어스타일과 패션의 의미 및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4), 567~577.  
 스튜어트 유웬. (1996). 이미지는 모든 것을 삼킨다: 소비사

- 회와 스타일의 문화정치학. 윤자정 옮김. 서울: 시각과 언어.
- 新남성 메트로族 '여성'을 입는다. (2003, 7. 24). 자료검색일 2003. 12. 26. 자료출처 <http://www.successpia.co.kr>
- 양학미. (1999).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패션에 나타난 혼성 모방.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 윤지영. (2001). 해외통신/ 프랑스: 말보르맨은 가라, 중성화 두드러지는 광고속 남성들. 광고정보, 247(10), 112-117.
- 이경선. (1994). 미국-시대특성, 대중취향 반영한 현대의 미국광고. 광고정보, 156, 114-121.
- 전선경, 양선미. (1997).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Post-modernism 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3(1), 203-222.
- 정근원. (1996). 성과 매스미디어와 자본주의. 기독교사상, 40(8), 27-36.
- 황병일. (1995). 패션의 수용과 확산에 관한 종합적 검토. 광고연구, 95(겨울호), 53-77.
- Coffin, J. G. (1996). *The politics of women's work: the Paris garment trades, 1750-1915*.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oper, W. (1971). *Hair: Sex, Society and Symbolism*. New York: Stein and Day.
- Douglas, M. (1978). *Purity and Dange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Firth, R. (1973). *Symbols: Public and Private*. London: Allen & Unwin.
- Freedman, R. (1986). *Beauty Bound*. Lexington, Mass. : Lexington Books.
- Guthrie, R. D. (1976). *Body Hot Spots*.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Hair fashion. (2002, September). *Global Cosmetic Industry*, 170(9), p. 10.
- Hallpike, C. R. (1969). Social Hair. *Man*, 9, 256-264.
- Hebdige, D. (1979). *Subculture: The Meaning of Style*. London: Methuen.
- Hilfiger, T. (1997). *All American*. New York: Universe Pub.
- Jones, D. (1990). *Haircuts: fifty years of styles and cuts*. New York: Thames and Hudson.
- Kelley, R. D. G. (1997). Nap time: historicizing the Afro. *Fashion History*, 1(4), 339-352.
- Leach, E. A. (1958). Magical hair. *Man: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88(Pt II), 147-164.
- Mallossi, G. (2000). *Material man: masculinity sexuality style*. New York: H. N. Abrams.
- Morago, G. (2003, Feb. 10). Furry-looking guys: Hair today, gone tomorrow?. *Lansing State Journal*, p. D.
- Rubinstein, R. P. (1995). *Dress codes: meanings and messages in American culture*. Boulder: Westview Press.
- Synnott, A. (1993). *The body social: symbolism, self, and society*. London · New York: Routledge.
- Turner, V. W. (1967). *The forest of symbols: Aspects of Ndembu Ritual*.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Willis, P. E. (1978). *Profane Cultur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Zdatny, S. (1999). *Hair styles and fashion: A hairdressers's history of Paris, 1910-1920*. Oxford · New York: BERG.